

조선대, 노인성 뇌질환 치료 의료기기 개발한다

가드코호트연구단, 정부 ‘글로벌 TOP 프로젝트’ 선정
한국의학연구원·KAIST 컨소시엄…5년간 250억 지원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가드코호트연구단(단장 이건호)이 한국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정부의 10대 글로벌 TOP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 이하 NST)는 2025년도 총 10개의 ‘세계 최상위 수준(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신규로 선정했다. 조선대학교 가드코호트연구단이 참여한 ‘차세대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도 포함됐다.

이번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세계 최상위 수준(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

원사업’은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과 초격차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조선대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국가전략형과 미래도전형으로 분류된 총 10개의 전략연구 중 미래도전형 연구단으로 선정돼 퇴행성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차세대 뇌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전략연구단)’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글림프계를 활용해 노인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구단은 특히 뇌 글림프계 자극에 따른 뇌척수액 흐름 변화와 노폐물 제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세계 최초로 인간 대상의 글림프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 분야 전문 의료진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고위험군 코호트를 보유한 조선대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부터 임상 검증, 기기 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통합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의료기기의 실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대응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미래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할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건호 가드코호트연구단 단장은 “글로벌 TOP 프로젝트 선정은 조선대학교의 의료 빅데이터 역량과 첨단 연구기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웰에이징을 선도하는 조선대학교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의료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가족 800여 명이 지난 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고등학교에 집합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교육가족, 올해도 ‘5·18 민주평화대행진’

광주시교육청, 800여명 참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광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광주교육가족 800여 명이 최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진에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생회 대표 550여 명과 분청·직속기관 250여 명 등 총 8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500여 명이 참가했던 것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학생 5·18 플래시몹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출정식을 열었다. 학생 5·18 플래시몹은 지난 3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5·18의 가치를 알린 학생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선두에 두고 대열

을 맞춰, 광주고등학교에서 금남공원까지 1.98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마지막으로 도착지에서 오월 풍물단의 ‘오월길맞이곡’ 관람을 시작으로 5·18 전야제를 함께 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5·18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광주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가족의 민주평화대행진 참여는 5·18 교육을 몸으로 체화하고, 광주정신을 세대를 넘어 전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의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분청 직원 학생 희생자 추모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및 학생 희생자 추모비 교육가족 합동 참배 등 다양한 5월 교육을 통해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한전KDN 협약... ‘혁신캠-오픈캠’ 연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동신대학교가 한전KDN(주)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12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전KDN(사장 박상형)과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ICT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에 착수해 IC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마련, 현장실습, 인턴십 등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동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교육부 글로벌 대학30 사업, 전라남도 RISE 시그니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해갈 방침이다.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인재 양성사업을 융합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혁신융합캠퍼스는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연계과정을 개설하고 공공기관은 전문기를 파견



해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혁신융합캠퍼스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커리큘럼 개설부터 실무교육까지 공동으로 참여하고, 인턴십 멘토링 현장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인재를 육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신대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시

범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힘을 모아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모이면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가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청년일자리스태이션 상무, 공식 홈페이지 신규 오픈

광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태이션 상무센터(이하 ‘상무센터’)가 공식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고, 온라인 기반의 청년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19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 오픈은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을 비대면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SNS 간편 로그인 및 회원가입 ▲사전 상담 신청 및 프로그램 접수 ▲청년 고용정책 정보 제공 ▲상무센터 소개 및 운영 일정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접근성을 지원한다.

상무센터는 홈페이지 신규 오픈을 기념해 2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SNS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전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참여자

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협력하여, 15~3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일환인 광주청년일자리스태이션은 취업과 창업, 일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태이션 상무’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신청 링크(<https://youthjobstation.co.kr/program/program.php>)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 지역 학생들 건강해졌다

건강지표 향상...전남교육청, 신체활동 실천·식습관 개선 효과

전남 지역 학생들의 운동량이 늘고 건강한 식습관이 정착되는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지역 중·고등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도 37.3%에서 42.9%로 크게 올라 전국 평균(41.5%)을 상회, 전국 6위를 기록했다.

또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25.9%,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주 5일 실천율은 19.4%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식습관 측면에서도 성과가 뚜렷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4.3%로 전국 평균

(28.9%) 대비 가장 낮았으며 단맛 음료 섭취율도 64.1%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 실천 효과가 도드라졌다.

전남도교육청은 ‘튼튼한 몸, 건강한 마음’을 기조로 건강증진 통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의 교사들로 구성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건강행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기지개 프로젝트, 건강 체력교실, 저탄소 녹색급식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교육의 근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생 중심의 건강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